기도의 완성은 '발뺌 기도'

(열왕기하 19:8~19)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15.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완성은 <기도의 완성은 '발뺌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기도의 완성은 '발뺌기도'
선민의 기도는 오직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계의 첫 번째는 발을 빼기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발을 이미 뺀 자로서의 기도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발을 뺀 자의 기도를 위해서는 발을 빼기 위한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발을 뺀 상태가 아니면 어떠한 기도도 무용하고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완성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삶에서 잘 활용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계시되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1분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주의 기도의 변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기도는 구절구절의 의미를 곱씹어야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음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급박하게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하는 기도도 필요하므로 주의 기도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지 않아도 그 뜻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1분 기도입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를 하며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언제나 발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발을 빼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알려주신 것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여 그 효과와 결실을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기도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요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보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침묵을 통하여 발 뺀 마음의 상태로 이 세상 현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 기도를 드릴 때에 100배의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민에게는 반드시 발을 빼기 위한 기도와 발을 뺀 상태에서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랍사게의 모욕 사건 이후에 이번에는 앗수르 왕의 산헤립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유명한 이유는 이 기도 후에 십팔만 오천 명이라는 앗수르 군대가 자멸하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던 산헤립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 칼에 맞아 죽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삶의 현장에 불러들인 것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소원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많은 연구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발뺌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본 히스기야의 기도의 전체적인 인상은 어떠합니까?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합니다.
편지를 읽어가다 보면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욕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산헤립의 모욕의 내용을 보면 산헤립이 그의 군대로 여러 나라와 민족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때마다 각 민족이 그들의 신에게 구원을 간구하며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 받기를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어느 민족의 신도 앗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기지 못했고, 남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자질을 해서 마치 앗수르와 여

호와를 이간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부추기며 하나님을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앗수르와 대면하는 현장 안으로 하나님을 불러들이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꼼수의 인상이 바로 선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또한 앗수르가 무찔러온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도 하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에 산헤립이 모독할 수 없다며 가만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본문을 살펴보아야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앞의 6~7절을 읽어보시면 2차 앗수르 침공과 연관 지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산헤립이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앗수르의 산헤립과 그 군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진 타이밍은 산헤립이 편지를 보내기 전이므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현장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때서야 발을 걷어붙이시고 앗수르 군을 자멸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2차 침공의 현장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당면했던 앗수르의 2차 침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와 연관 지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 앞선 사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이론믿음에 충실했고 왕의 위치를 이용하여 그 이론대로 나라 안의 산당을 제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백성들 또한 선민으로서 왕이 산당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론믿음에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그 이론믿음대로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음을 경험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앗수르의 1차 침공은 너무나도 두렵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이론믿음으로 무장되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의 벽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

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앗수르의 1차 침공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 문제가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기도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마음에 끌어들여서 안게 된 세상 문제에 대해 판단하여 만들어낸 해결책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동원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보다 세상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기도를 합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힘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원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도달한 곳이 침묵의 자리입니다. 마음을 뚫고 들어온 앗수르 2차 침공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침묵하자 마음 안에서 앗수르 2차 침공의 상황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앗수르 2차 침공 현장으로부터 마음의 발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 일로 여기지 않고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때에 급격한 현장의 구도개편이 일어납니다.
정계개편이라는 말은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일어나게 되고 청와대에서는 장관을 갈고 난리가 납니다. 이처럼 현장에 구도개편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장에는 히스기야가 있고 앗수르 침공이라는 문제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존에는 이 삼자구도에서 히스기야가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양자구도가 주된 구도이고 거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끌어 들여서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앗수르 2차 침공의 사건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연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2차 침공이라는 문제에 대해 발을 뺀 제삼자가 됨으로서 상황은 여호와께서 문제와 대립하시는 개편된 구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 문제를 기도하는 선민들은 이 구도를 마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도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문제에 대한 모든 기도는 무효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침묵을 통하여 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뺌으로서 판단도 죽고 생각도 죽고 노력도 죽습니다. 세상 문제에 대해서 발을 빼고 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렇게 나는 발 빼고 있는 상태에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대결하시는 구도가 되는 것인데 이럴 때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정이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시합을 할 때에 우리나라 선수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감정이 이입되자 앗수르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에서 '하나님!

저 앗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편지를 모르실 리가 없지만 히스기야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드린 것은 그것이 자신을 모욕하려함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했음을 느꼈던 것이고 느낌과 확신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일이 내 일이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서 발을 빼고 나자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현장에서의 사건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먼저 들어와 계심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장로님들이 예배 때에 대표기도를 하시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의 뜻은 지금 앗수르 2차 침공이라는 위협이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급박한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와계심으로, 내 마음에는 이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침묵 이전에는 산헤립의 위협은 곧바로 나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기에 화가 나기보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앗수르가 대결하는 것을 제삼자 입장에서 보며 하나님 편을 들다보니 천지를 지으신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산헤립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앗수르를 두려워하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는 앗수르에 대해 화를 냈던 것입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을 오해하는데 나의 구원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앗수르의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침공이 이 세상의 실제 상황 속에서 남 유다와 대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 뺀 히스기야 왕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다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일개 지방 신쯤으로 여기고 까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앗수르 침공 위협 하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민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발 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발 뺀 자의 기도만이 이 세상의 실제 상황과 현장에

대한 기도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장로님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선민인 장로님은 사업에서의 문제가 마음을 뚫고 들어와 장로님으로 하여금 판단하면서 걱정하고 방책을 생각하도록 문제에 쫓기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삼성의 회장일지라도 삼성 전체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진짜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현장에서 급박한 문제가 있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보다 더 급박한 사건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침묵을 통해 문제에서 발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사건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삼자구도가 양자구도로 개편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대면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수행하실 때에 필요하면 우리를 동원해서 하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19절에서의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으나, 문제에서 발뺌하고 나자 하나님과 문제가 대면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수행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를 동원해서 쓰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이고 백발백중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먼저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발뺌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대면하신 하나님의 양자구도가 마음에서 확인되기 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무효인 가짜 기도입니다. 문제와 하나님이 대면하고 계심이 마음에서 느껴진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동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이 드려야 하는 발 빼기 위한 기도이며 발을 뺀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의 결실들을 계속해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침묵을 통해 현장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발 빼게 하시고, 그 문제와 하나님의 양자대결의 구도를 마음으로 보게 하시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게 분노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동원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